

##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다

<sup>1</sup>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sup>2</sup>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sup>3</sup>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sup>4</sup>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sup>5</sup>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 친 곳이라 <sup>6</sup>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출18:1-6)

영적 교회의 사람들이 더이상 진리로부터 행동하지 않고 선으로부터 행동할 때, 그에게 진리의 질서가 잡힌다. 이것이 그가 시험을 겪은 다음 나타나는 두 번째 상태이다. 왜냐하면 그가 진리로부터 행동할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은 그에게 있는 진리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진리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주님께 의해 진리들이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진리들이 질서에 순응할 때 비로소 영적 교회의 사람들은 두 번째 상태로 들어간다. 두 번째 상태는 진리를 기꺼이 원하는 것과 그것들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진리들은 삶에 속한 것이 되며, 그러므로 선이라 불리게 된다. (AC.864 3)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8643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is setting in order is effected with the man of the spiritual church when he begins to act no 1*

출18:1-6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다’

*onger from truth, but from good; for this state is his second state, which arises after he has undergone temptations. For when he acts from truth, then he is tempted, to the intent that the truths with him may be confirmed; and when these have been confirmed, then they are reduced by the Lord into order; and when they have been reduced into order, then he enters the second state, which consists in willing truths and doing them, where by they become of the life, and are called goods.*

이는 오늘 본문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에 관한 주석 중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가 모세를 찾아온다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 한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 후 이제까지 광야에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던 중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와 함께 미디안에 있던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모세를 찾아오기 전의 이드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sup>1</sup>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가 그동안 모세와 그의 백성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들었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이드로는 선으로서의 주님(*the Divine good*)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진리로

##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다’

서의 주님(*the Divine truth*)을 나타낸다면 이드로는 선으로서의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진리보다 선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예를 들면, 빛이 있기 전에 불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선은 불과 같은 것이고, 진리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 진리에 앞섭니다. 이드로를 모세의 장인으로 표현한 것은 그래서입니다.

주님은 선과 진리의 성품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람에게 오실 때는 그것으로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먼저 진리로 오시고, 그다음에 선으로 오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일 때, 이성을 통해 진리를 먼저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의지를 통해 선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오는 일련의 과정들은 신앙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인데요, 왜냐하면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의 영적 상태는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선을 받아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선이 있어야 본격적으로 인애(仁愛, *charity*)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만 가지고는 인애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잘 안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나 어려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이드로의 모습은 주님이 선으로 오시기 위해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먼저 각 사람에게 있는 진리의 상태, 즉 믿음의 상태를 파악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확고한지를 파악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선을 주시면 선을 간직하지 못하고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선을 더럽히는 일은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인 다음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진리와 선을 모두 받고 인애의 삶을 살다

출18:1-6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다’

가 그것을 더럽힌다면, 개인적으로 볼 때 대단히 큰 불행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하실 때 선으로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 따라 진리의 내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인데요, 주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시다. 왜냐하면 그들의 타고난 성품이 진리의 내적인 것을 안 다음에는 틀림없이 더럽힐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적인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습시다.

<sup>9</sup>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sup>10</sup>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열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사6:9-10)

따라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이드로가 들었다”는 말은 주님께서 교회 안의 사람들이 겪는 모든 시험 과정들을 관찰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상태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드로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오시는 시기를 판단하십니다.

<sup>2</sup>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sup>3</sup>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드디어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인데 속뜻으로는, 모세로 표상된 진리와 결합할 선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모세의 두 아들은 누구일까요? 선과 결합한 진리로부터 나오는 선입니다. 이 선을 새 교회 가르침에서는 ‘진리의 선’이라고 부릅니다. 즉 선과 결합한 진리를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진리의 선’이라 불리는 선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선’을 말씀에서는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로 표현하고 있

##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다’

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돌려보냈던 아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새 교회 진리를 처음 받아들일 때, 즉 이 진리가 참 진리구나! 라 느끼고 그것을 자기 삶의 원리로 삼을 때, 그때는 누구에게나 선은 보이지 않고 진리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만 보이고 십보라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가리켜 돌려보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내가 부재(不在)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처음 진리를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선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리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지만 아주 냉정하고 엄격하기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이웃에게도 그렇습니다. 너그러움이나 관용, 유연함 같은 것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하게 대처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주 부드럽게 대처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에서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

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자라면 어느 시점에서 주님이 선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을 그가 가지고 있던 진리와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보라가 모세에게 돌아오는 때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제게 ‘새 교회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사랑이 없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교회가 아직 초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새 교회는 주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교회이고요, 그러므로 영원히 지속될 교회입니다. 주님의 종 스펀텐보리 선생님이 말씀의 속뜻을 밝힌 것이 불과 2백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을 영원한 시간이 비하면 그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새 진리를 알게 된 것은 불과 6, 7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직은 그냥 진리만 있을 뿐이죠. 선이나 사랑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습

출18:1-6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다’

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진리를 삶에 적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sup>4</sup>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은 진리와 선의 결합에서 태어나는 선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만 가지고 행하는 선이 아니고요, 진리와 선을 함께 가지고 행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진짜 선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명령하니까 마지못해 행하는 선이 아닙니다. 사실 진리를 행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넘어졌다 일

어셨다를 반복하면서 진리를 행하는데, 그렇게 행하는 선이 아니고요, 모세의 아들들로 표상되는 선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행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 선은 진짜 선이고, 이전보다는 따뜻하고 유연한 선입니다.

물론 모세로 표상되는 진리를 가지고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모세로 표상되는 진리 안에도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교회의 가르침을 보면 모세로 표상되는 진리 안에 있는 선은 십보라로 표상되는 선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전자가 봄날의 햇빛에서 느끼는 온기 같은 것이라면, 후자는 태양에서 직접 나오는 불꽃과 같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힘이 강력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에 의해 모세와 십보라가 재회하는 것은 사실은 거듭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도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이 생기구요, 또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전보다 훨씬 더 능동적,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모세의 아내가 재회하는 것은 거듭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다’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를테면 우리가 진리에 따라 선을 행할 때 게르솜이라는 특성을 가진 선을 행하기도 하고요, 엘리에셀이라는 특성을 가진 선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요. 그런데 선의 특성이 이렇게 두 가지인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는 진리가 그렇게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적용하는 진리가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으며, 그러므로 그것에 따라 행하는 선도 크게 보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원상으로 게르솜은 이방의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방의 나그네란 내적 의미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게르솜으로 표상되는 선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진리에서 나오는 선입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에셀이란 말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칼로

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 입문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로 표상되는 선은 교회의 진리로부터 나오는 선입니다. 다르죠. 교회 밖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진리에서 나오는 선과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의 선은 전혀 다릅니다. 어느 것이 더 차원이 높을까요? 당연히 교회의 진리로부터 나오는 선이 차원이 높은 선이겠죠. 각자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애굽을 탈출하기 전 상태가 있고요, 애굽을 탈출한 다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 상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가 없는 때이며, 그러므로 진정한 진리가 없는 때입니다. 진리가 없을 때는 무엇을 의지해서 삽니까? 인간의 도리라던가, 세상의 윤리 같은 단순한 진리에 의지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힘이 약해요. 그래서 그때는 애굽의 바로로 표상되는 거짓들에 의해서 항상 지배를 받습니다. 반면에 애굽을 탈출한 후의 상태는 우리 내면에 교회가 세워지는 때입니다. 교회가 세워짐에 따라 이전 가지고 있던 단순한 진리들은 이른바 믿음의 진리라고 하는 교회의 진리들로 대체됩니다. 단순한

출18:1-6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다’

진리가 있던 자리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들이 속속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죠. 여전히 인간의 도리라든가 윤리 의식 같은 단순한 진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는 특성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두 가지 진리가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진리에 따라 행하는 선 역시, 두 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게르솜이라는 선과 엘리에셀이라는 선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 교회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특징인, 또는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있는 선하고 진실한 것을 지지하고 부양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이 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 그것을 받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도리로 하는 일과 교회의 진리로 하는 일은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종류의 선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금 그들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모습을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sup>5</sup>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 친 곳이라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와 모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광야는 아시는 것처럼 시험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일행이 광야로 들어온 것은 신앙인들이 시험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주님께서 선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드로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이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드로와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아들들이 다 함께 선을 뜻하는 이유는, 이들이 각각 단계, 등급이 다른 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일행이 모세를 찾아온 것이 주님으로부터 선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가 의미하는 선은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이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람의



##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다’

가장 깊은 내면으로 흘러들어오는 가장 높은 등급의 선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가장 높은 등급의 선으로부터 나와서 모세로 표상되는 진리와 결합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간 정도 등급의 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면의 의식 가운데 속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은 극내면(極, inmost)이라고 하는 가장 깊은 의식이 있고, 속사람(internal)이라고 하는 중간의 의식이 있고, 가장 바깥쪽에 겉사람(external)이라는 의식이 있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아들들은 그중 어디에 있을까요? 겉사람 안에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들로 표상되는 선은 겉사람의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선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차원의 선입니다. 둘 다 가장 밖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선은 어떤 것일까요? 엘리에셀로 표상되는 선이고요, 그보다 낮은 것은 게르숨으로 표상되는 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리 역시 가장 높은 등급으로부터 가장 낮은 등급의 진리가 있고, 그것이 서로 통해 하나가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진리들을 말씀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홀로 표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선과 대응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홀로 표상되는 진리들은 이드로와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들로 표상되는 선과 서로 대응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모세는 가장 높은 진리인데, 왜 중간 등급의 선인 십보라와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모세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를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와 대응할 때는 가장 높은 진리를 나타내고요, 십보라와 대응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모세가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드로와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들과 모세와 아론과 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의문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만나러 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산은 본래 사랑이나 선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진리의 선’을 나타냅니다. 조금 선에 게르숨과 엘리에셀

출18:1-6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다’

이 진리의 선을 뜻한다고 했는데, 그 진리의 선의 상태가 여기서 하나님의 산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있다는 것은 영적 교회의 사람들이 진리에 따라 막 선을 행하기 직전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에 당도했습니다. 그것은 혹독한 시험을 견딘 결과로 이제 진리에 따라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단계에 이를 때 주님께서 선으로 오십니다. 그것이 이드로 일행이 하나님의 산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산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장막을 치는 것은 진리에 따라 선을 행하는 단계에 이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는 것인데, 어떻게 시키시느냐 하면, 우리 안의 진리들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진리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

인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조금 전에 진리를 처음 배울 때는 선은 없고 진리만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진리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무조건 밝고 강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진리를 적용할 때도 너무 강하고 엄하게 적용을 해서 자꾸 자신을 괴롭힙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어루만지지 않고 너는 왜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느냐? 이렇게 상처를 후벼 파고 괴롭힙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진리를 강요하고 상대를 판단하려고 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꼬집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때의 진리들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들은 선에 의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은 아마도 각각의 진리가 선과 결합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앞서고 뒤서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선에

##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다’

의해 질서가 잡힌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들이 주님께 의해 질서가 잡힐 때, 우리는 보다 유연하게 진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강하게 진리를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드럽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세계는 너무 깊어서 인간의 머리로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진리들을 당신의 질서 가운데 두시려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질서에서 벗어난 진리들을 당신의 질서 안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진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치는 일은 주님께서 진리를 당신의 질서 가운데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칠 때에 그냥 함부로 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정한 질서에 따라 장막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진리들을 당신의 질서 가운데로 모으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여정이 끝날 때마다 장막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광야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진리가 아니라 선으로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모세의 장인과 아내와 아들로 표현한 것은 선은 각각 등차, 등급이 다른 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등급이 다른 선은 가장 높은 등급으로부터 가장 낮은 등급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로 표상되는 순수한 진리 안에도 선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은 햇빛에서 나오는 온기와 같은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꽃과 같은 뜨거운 선이 반드시

출18:1-6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다’

필요합니다. 그 선을 받을 때 우리는 진리가 시키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다 능동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히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다가 때가 되었다 싶으시면 우리에게 선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기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만큼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단계에서 선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와 우리 교우님들에게 반드시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14:18)

아멘

원본

2016-09-11(D1)

청주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2-12-26(D2)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